

목포 골목길, 문화관광 콘텐츠로 뜬다



골목길을 테마로 시도하는 첫 축제인 '골목길이 춤춘다'가 19일과 20일 서산동 시화골목과 연희네 슈퍼 일원에서 펼쳐진다. 연희네 슈퍼 앞 시화골목 입구. <목포시 제공>



최근 목원동 옛 신안군청 뒷골목 일대에서 골목길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행사가 펼쳐져 작지만 강한 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독자 제공>

목포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아날로그 향기 가득한 골목길이 유난히 많다. 서산동과 목원동의 골목길이 대표적이다. 오랜 세월 지켜져 쌓여 만들어진 추억이 온전하게 녹아 있는 공간. 그런 골목길에 대한 향수 하나쯤 누구나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향수를 자극하는 '문화·감성 회복' 프로젝트들이 잇따르면서 목포 골목길이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느끼게 걷는 골목은 '슬로시티 목포'와도 부합해 목포 골목길만이 가진 소박함과 친숙함이 주는 따뜻함(온기)을 살려낸다면, 외국 유명도시 명소 못지않은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골목길이 춤춘다'가 19일과 20일 서산동 시화골목과 연희네 슈퍼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 곳 시화 골목길은 모두 네 갈래의 골목으로 이뤄졌다. 골목골목마다 이름이 부여됐다.

첫째 골목은 바보 마당 작가 갤러리, 둘째 골목은 버스킹 마당, 셋째 골목은 주민 갤러리 마당, 넷째 골목은 체험마당으로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이어 19·20일 '골목길이 춤춘다' 행사
향수 자극하는 공연·전시 등 예술의 옷 입혀 원도심 가치 높여
슬로시티 목포와도 부합...작지만 강한 축제로 문화 중심지 부상

빈대떡·과자·주먹밥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난장이다.

주민들 스스로 골목길을 그려내고 써 내려가는 '내가 골목길 주인이다' 코너에서는 서산동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생활상이 영상으로 제작돼 상영되고, 금동동 주민들의 생활상과 과거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골목길 벽에 전시된다.

골목길 문화예술 난장 '그리다' 코너에서는 풍물패, 열수 공연, 버스킹, 합창 공연, 진도 북놀이, 재즈 앙상블 등 총 23종의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된다.

'골목길을 보고 싶다' 코너는 여구·선구 등 주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풍물과 함께 주민들의 그림과 생활사진 등이 전시되고, '체험, 행하다' 코너에서는 골목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아트마켓, 주민 정(情) 음식체험, 골목길

카페, 바보마당 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골목길은 사회적인 작품이며,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축제를 통해 유달산 자락 골목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목포 원도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목원동 옛 신안군청 뒷골목 일대에서 골목길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행사가 펼쳐져, 작지만 강한 축제로서 성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목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주민들이 직접 발족시킨 단체 '골목길 사람들, 북교골'이 주도한

이번 축제는 장구와 북·가야금, 북교초등학교 학생들의 밸리댄스와 바이올린, 세계적인 부도 명인 서승아 춤, 자전거 줄타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전시 프로그램인 '힐힐 나는 옥단이 문화예술 한바퀴'에서는 골목길 사람들의 추억 이야기 아카이브, 탈성동 할머니들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림전, 옛날 목원동 사진전, 80세 이상의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시 벽화, 차범석 생가에서 조각전, 목원동 일대 풍경과 삶의 이야기 수록화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곧 공예체험·염색체험도 인기 속에 진행됐다.

또 골목길 사람들이 대문을 하루 동안 개방해 집 주인이 음식을 나누는 '골목길 사람들의 품앗이 이야기'는 호응도가 높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골목길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축제의 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열린 어린이집' 36개소 선정...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박차

프로그램·운영에 부모 참여

목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14일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을 개방하고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에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36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로, 개방성·지발성과 참여성·지속 가능성이 확보된 게 특징이다.

목포시는 지역 202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10월 한 달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현장시찰 확인과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재선정 17개소를 포함 총 36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밝힌 세부선정 기준에 따르면 개방성(30점), 부모 참여성(40점), 지속가능성(10점), 다양성(5점) 등을 평가해 최소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가운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부여(지자체형 5점, 우수형 10점), 보조교사 우선지원, 국립어린이집 재 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목포시가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36개소 선정에 나선다.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K열린어린이집 모습. <목포시 제공>

정기 지도·점검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정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매년 재선정 및 신규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수경 목포시 보육팀장은 "올해 17개소에서 내년 36개소로 점진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

된 양육 환경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양양 대책', '어린이집 멘토링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3개 권역 수행기관 모집

목포시가 지역 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나선다.

목포시는 14일 기존 6가지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접근성·독거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해 목포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중으로 권역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유사하거나 분절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다가오는 초 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당(신도심)지역을 1권역으로 연산·원산·산정·용당·죽교·대성동을 2권역으로, 목원·유달동 등 원도심을 3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관을 1곳씩 모집한다.

신청 대상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하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

목포 남항앞바다 백로류 몰려 '장관'



철새 중간 기착지로 유명한 목포 남항 앞 바다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등 백로류 50여마리가 몰려와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김석이 학예 연구사 제공>

철새 중간 기착지로 유명한 목포 남항(문화예술회관 앞 바다)에 진객들이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14일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최근 백로류 50여 마리가 남항 앞 바다에 몰려와 먹이활동이 한창이다.

백로류는 왜가리와 쇠백로, 중대백로, 노랑부리백로, 해오라기, 검은댕기 해오라기 등이 대표 종이다. 머리에는 흰색의 거센 장식깃이 있고 등에는 레이스형 장식깃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쇠백로와 노랑부리백로는 몸길이가 약 55cm 정도이고, 중대백로는 90cm 정도다.

2005년부터 남항을 관찰해온 김석이

학예연구사는 "국내 서식하는 16종의 백로류 가운데 목포 남항에서만 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류 전체로는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도 함께 이곳을 찾아와 탐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항 앞 바다는 면적은 좁지만 갯벌이 잘 발달돼 연체동물에서 절지동물까지 먹이가 풍부해 계절별로 많은 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20여종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장소로 유명하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